

할매는 유구한데 곡주사는 간데 없네

글 · 김학민 hakmin8@hanmail.net

지난 2004년 곡주사 할매집의 할매 모습.
지금은 건강 문제로 이곳을 다른 이에게 넘기고 살아가고 있다. 사진 황석선



하루가 빠듯했다. 아침 일찍 KTX편으로 대구에 내려와 다른 용무로 경남 함양 지곡의 정여창 고택을 방문하고는 급히 점심을 때우는 등 마는 등하고 대구 서부터미널로 돌아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곡주사가 있는 염매시장 가는 길을 물었지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할 수 없이 택시를 탔다. 하염없이 길게 늘어서서 손님을 기다리던, 고된 삶에 지친 듯 무표정한 택시기사가 통명스레 행선지를 묻는다.

“염매시장 아세요? 삼성금융센터 부근이었는데, 그 시장 입구로 좀……”

“아, 그 시장이요? 요즘은 대구 사람도 염매시장 잘 몰라요.”

이번 대구행에는 1980년대 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의 열렬 활동가 최연 씨가 함께하기로 했는데, 그에게 잡자기 일이 생겨 나 혼자 오게 되었다. 택시 안에서 최연 씨가 소개해 준 대구 대불련의 조인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곡주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불교 판에서 활동했던 친구들과 곡주사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곡주사는 절? 아니다. 곡주사는 곡주가 혼한 절이 아니라, 곡주가 혼한 술집이다. 곡주사(哭呪土) 뜻하여 통곡하고 울부짖는 선비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술집의 이름인 것이다. 시인 배창환은 곡주사를 이렇게 노래했다.(〈곡주사 할매집〉 중에서)

곡주사, 곡주사……/ 곡주사가 절간이라고?
아니, 막걸리집이라고? / 할매집이라고?

아니야, 거긴 / 염매시장 질편한 흠바닥이야, 아니야
거긴 염매시장 재개발 포코레인 이빨 앞에 / 몸통을
반이나 푹 떼어주고 겨우 살아남은
작은 섬이야, 아니야 거긴 / 우리들의 아지트야……

아무도 못 가고 / 이젠 진짜 할매가 되고 만
할매집 이모만 혼자 남아 / 늙어 가는
외상 장부만 누렇게 낡아서 떨어지는.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굴욕감, 삼일운동 실패로 인한 실망과 경제적 파탄, 지식인의 실업상태로 인한 불안으로 희망을 잃고 길을 헤매었던 김억, 오상순, 염상섭 등은 1920년 7월 “옛것은 멀하고 시대는 변하였다/ 내 생명은 폐허로부터 온다”는 실려의 시구를 인용하여 ‘폐허파’ 동인을 결성하였다. 공초 오상순은 “우리 조선은 황량한 폐허의 조선이요, 우리 시대는 비통과 변민의 시대이다”라고 절망했다.

‘폐허파’의 동인들처럼, 대구의 지식인들도 1970, 80년대 그 황량한 폐허의 대구에, 비통과 변민의 시대에 고통스러워했다. 일제 하에서의 끈질긴 독립투쟁, 해방공간에서의 질곡의 민중현실을 타파하고자 일어났던 거대한 싸움, 이승만 독재정권 하에서의 전 도시적 민주항쟁 등 우리 현대사에서 대구라는 지역이 감당해왔던 그 엄청난 역사성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독재권력에 의탁하여 자기 이득을 쫓는 지역패권주의의 화신처럼 바뀌어 버렸으니, 대구의 뜻있는 자 어찌 통곡하고 울부짖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인성과 약속한 시간이 남아 염매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곡주사에 들어갔다. 아직 술사가 되려면 멀었지만,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에 몇몇이 날곳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아줌씨 둘이 앉아 있다가 홀로 들어오는 나를 엉거주춤하게 맞아 물잔을 가져다 놓는다. “여기서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요. 술은 나중에 시킬 게요” 하고는 취재를 하려고 이 집 할매를 물으니 도대체 할매나 곡주사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들은 1년 전에 전 주인에게서 가게를 인수하였단다.

잠시 하릴없이 남 술 마시는 거나 우두커니 구경하고 있는데 조인성이 들어왔다. 수인사를 하고 할머니 행방을 물으니, 할매는 자기가 일하는 기획사 부근에 사는데 그리로 가면 집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곡주사 정옥순(76세) 할머니는 중구 대봉동 대구향교 부근 허름한 단독주택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다. 조인성이 “서울에서 선배님이 할매 말씀 좀 들으러 왔다”고 하니, 무조건 들어오라고 두 팔을 휘이 젖는다. 민화투라도 치고 있었는지 마실 온 이웃 할머니도 한 분 있었다.

“할매, 저 누군지 모르시지요? 이지범, 광병호와 함께 자주 곡주사에 갔던……”

“왜 몰라? 불교 아냐?”

정옥순 할머니는 조인성의 이름은 몰랐지만, 들어오면서 ‘할매’ 하는 소리에 조인성이 이미 불교패인 것을 아셨다. 곡주사에서의 정옥순 할머니의 호칭은 드나드는 패거리에 따라 달랐다고 한다. 대구의 학생운동 그룹은 이모라 불렀고 경북대 의대 학생들은 고모라 불렀다. 그리고 경북대 상대 학생들은 숙모였고 대불련 학생들은 할매였으니, 이름은 가물가물해도 척하면 어떤 패거리인지 바로 아셨다.

“곡주사를 시작한 건 한 40년 되었어요. 고향 상주에서 군악대 1등상사인 남편과 결혼해 4남매 낳고 잘 사



곡주사 찜집

는데, 어느 날 남편이 두집살이를 하더라고요. 그날로 아이들 데리고 대구로 와 있다가 어찌어찌하다 염매시장 골목에서 대포집을 하게 되었고 4년 전에 넘어져서 다리를 못 써 곡주사를 그만두었지요.”

할머니는 가게에 딸린 쪽방에서 4남매를 키워 이제 결혼까지 다 시켰다. 아들은 방이 너무 좁아 술상 위에서 자기도 했다. 할머니는 1980년대 대학생들이 오기 전에도 늘 중구 독거노인들이나 걸인들을 거두어 먹여 주위에서 인심이 좋은 집으로 소문이 났었다. 한 여자 아이 거지는 귀가 먹어 듣지를 못하는데 할머니가 가게에 들여 일을 시키면서 키워, 이제는 시집가 잘 살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곡주사라고 이름이 붙어졌나요?”

“내가 붙인 이름은 아니지요. 1974년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에 인혁당 사건으로 대구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었잖아요. 그 가족들이나 남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붙였다고 해요. 얼마 전까지 중구 부근에 사는 인혁당 유가족 어머니들이 가끔 왔어요.”

1980년대부터 곡주사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등 대구 부근 대학생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대구에서 집회라도 열리는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학생들로 곡주사는 득시글댔다.

“당시 경북대에 서클이 48개 있었어요. 언제나 한 서클은 곡주사에 왔지요. 정보과 형사들도 들어와 따로 술 마셨어요. 누가 ‘이모’ 하고 들어오면 눈짓하여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요. 대공분실에도 끌려가 수배학생 있는 곳 대라고 심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따귀를 잘못 맞아 어금니가 다 나가버렸지요.”

할머니는 대구경찰청 대공분실에서 김재호, 유병태가 손을 뒤로 묶인 채 얻어맞는 것도 직접 보았다. 수배자 명단을 들이밀면 교도소 들어간 학생은 안다고 하고



곡주사 할머니와 대학재학 시 대불련 활동을 했던 조인성이 오랜만에 만났다.

교도소 안 들어간 학생은 모른다고 잡아땀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꼭 기억했다가 나와서 ‘이모 그룹’에게 알려 주었다.

“1980년 5월항쟁 때는 형사들이 진을 치는 바람에 15일 동안 문을 닫았어요. 물론 그 후 보상도 못 받았지만, 몇 해 전인가 대구의 광주사건 관련자 단체에서 감사패를 줬어요. 또 광주 묘지에 가서 ‘대구의 빨갱이 왔 습니다’ 외치기도 했지요.”

지난 40여년의 고초와 회한을 한번에 풀어 놓으시려는지 할머니 말씀은 끝이 없었다.

“이강철, 남영주, 정화영이도 자주 왔지요. 이우춘, 고은상, 전유덕, 서진구, 배영호도 기억나지요. 언젠가 경북대, 계명대 학생들이 몰려 왔었는데 외상이 33만 6천원이었어요. 이거 이강철이가 갚아야 하는데 아직도

안 갚았어요. 철학과 다니던 이우백이는 3년 전에 보약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두어 시간이 지나서야 정옥순 할머니 집에서 나와 다시 곡주사로 돌아올 수 있었다. 봄비는 아직도 부슬거렸다. 아까와는 달리 막걸리 한 되에 찌짐 한 접시를 시키자 아줌씨들의 얼굴이 환해진다.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질이 표준화되어 막걸리 맛이 괜찮다. 부추를 잔뜩 썰어 넣은 찌짐도 그런대로 고소하다. 할머니 없는 곡주사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게 어찌 이 아줌씨들만의 탓인가. 이 분들 역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인 것을.

글 김학민 | 민주화운동으로 수 차례 투옥된 바 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음식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blog.naver.com/hakmin8)